

# 한총리 1백번 이상 읽고 외워 붙어 연설

## “한국 찍겠다 약속하고 1차 투표서 8표 배신”

강무현 해수부장관 “北 가입 큰 힘”

### ■ 여수박람회 유치 BIE총회 뒷 얘기



이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었던 만큼 제142차 BIE총회가 열렸던 프랑스 파리 현지는 말 그대로 흥·갈 없는 전황터를 방불케 했다. 한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보는 차단됐으며, 경쟁국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치열한 첩보전이 연일 이어졌다.

한국대표단은 투표를 앞두고 매일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는 심경으로 보냈고, 80여 명의 현지 기자단도 속보경쟁을 벌이느라 신경을 곤두세웠다.

### 한국-모로코 같은 속소 치열한 신경전 모로코 지지 프랑스 끝까지 한국 발목

◇폴란드 “부당 경쟁” 트집=2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총회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폴란드는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당한 경쟁’을 문제삼아 한국대표단과 BIE사무국의 불만을 샀다. 폴란드는 PT를 통해 ‘최근 몇 달 새 BIE회원국이 급증한 것은 유치 후보국의 부당한 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BIE와 박람회 미래에 위해 투표를 기권(Abstain)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PT를 끝내고 퇴장하려는 폴란드 대표단의 팔을 붙잡고 ‘한국은 공정한 경쟁을 해왔다’고 항의했지만, 폴란드 대표단은 박 지사를 차갑게 바라본 뒤 한마디 말없이 퇴장해버렸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폴란드가) 경쟁에 참여해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모로코와 한 속소, 신경전=모로코는 한국대표단과 같은 호텔인 ‘메르디앙 에푸알’에 대표단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한국 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모로코는 한국의 박람회 홍보부스 맞은 편에 자신들의 홍보부스와 깃발을 세워놓았으며, 한국기자들의 접근과 취재를 원천봉쇄하는 등 처음부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또 총회 당일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여러 번 박람회가 치러졌지만 아프리카·중동권에선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모로코가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등을 부각해 한국대표단을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애태운 투표 비공개=파리의 유명 컨벤션센터인 ‘팔레 데 콩그레’ 2층에서 진행된 이날 투표는 예정보다 2시간을 넘긴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기자단까지 모두 퇴장시킨 채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낭보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이날 투표는 140개 BIE대표단이 한 명씩 단상으로 나와 본인임을 확인한 뒤 카세트테이프 크기의 무선 전자투표기를 받아 원래의 자리에서 투표기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선투표기에는 A, B, C로 표시된 3개의 버튼이 달렸으며, 한국은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A에 배정됐다. 모로코는 B, 폴란드는 C였다. 한국기자단은 투표장 밖 유리창을 통해 한국대표단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으며, 1차 투표를 끝낸 뒤 한국대표단이 낙심하는 모습을 통해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음’, 그리고 한국대표단이 일제히 두 손을 쳐드는 모습을 통해 승리했음을 확인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한 총리 붙어연설 1백번 외워=한국의 PT를 통해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가 끝난 뒤 프레스룸으로 찾아와 ‘실제로는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털어놓아 기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 총리가 BIE 공식언어인 영어 외에 프랑스어를 사용키로 한 것은 지난번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연설해 유럽권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던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 총리는 “프랑스어로 연설하기 위해 원고를 1백 번 이상 읽고 또 외웠다”며 “(내가)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으로 오해한 외신기자들이 프랑스



가슴 졸였던 유치전이었던 만큼 기쁨도 컸다. 27일 새벽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42차 BIE총회에서 여수박람회 유치가 확정되자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성곤 의원, 오현섭 여수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갑원 의원, 조종표 외교통부 차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사진 왼쪽부터)이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어로 물어볼 때는 ‘잘 안 들린 다’며 위기를 피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판세 따라 희비 엇갈려=한국 대표단은 파리에 도착한 21일부터 매일 오전 오후 비공개로 전략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기자들에게도 매일 오전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했다.

실제로 승부가 갈린 이후 대표단은 “투표 2~3일 전 모로코가 중·남미를 집중 공략, 한국 지지표가 많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막상 투표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6~7표가 적었다”고 밝혀 당시의 판단이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번 투표와 관련 “유치전에서 한국의 적은 모로코라기보다는 프랑스였다”고 밝히고 “모로코와 지리적·정치적으로 가까운 프랑스는 강력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유치전이 시작될 때부터 모로코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프랑스도 우리의 우방이긴 하지만, 이번 유치전에서 했던 행동을 한국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북한측에 여수엑스포 참가 요청을 했더니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결정투표가 이뤄진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결과 설명회를 열고 “총회 직전에 BIE 회원국이 크게 늘어 상당히 힘든 와중에 역시 새로 가입한 북한 BIE 대표를 증중했는데 참 든든했다”면서 “여수엑스포 참가를 요청했다니 ‘참석할 수 있겠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측 BIE 대표에게 북측이 단순히 한 표가 아니라 우리 사기도 높여주고 고맙다고 했더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깔끔하게 잘됐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당초 표 계산으로는 우리나라가 76표, 다른 나라가 94표 정도도 생각했다”면서 “1차 투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68표, 모로코가 59표, 폴란드가 13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표가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모로코는 아프리카가 첫 엑스포를 개최해야 한다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대단했다”며 “박관에 폴란드가 기권한다는 얘기가 돌아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여수엑스포 유치 공로와 관련, “50% 정도가 외교력, 30%가 민·관을 아우른 유치위원회, 20%는 현대차의 노력이라고 본다”라며 “현대차는 2010년 유치활동 때는 자사 홍보 위주로 왔는데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향후 절차와 관련,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직위 구성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2월내에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 백서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예상 관람객에 대해 “900만명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 관람객은 몇 십만명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해양관광은 카지노 없으면 안되는데, 여수에 카지노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해운을 담은 차, 푸조 307SW HDi

www.peugeot.com

307 SW PEUGEOT

공용버스 모터스(주)

307 SW PEUGEOT

## 지역현안 법안 결국 내년으로

### 낙후지역 촉진법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될 듯

### F1 특별법·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진통 예상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낙후지역 특별법), 포물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F1 특별법),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등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낙후지역 특별법은 무난하게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면 광주과기원법 개정안과 F1 특별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대통령 민주시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정기국회를 폐회한 후 대선 이후인 내달 2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올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에 시간

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합의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낙후지역 특별법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항응 파문으로 과기정위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1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F1 특별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호남지역 특별법만 처리되고 있다는 ‘영남역차별’ 논리를 제시하며 경주역사도시 특별법과의 연계를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전북의 새만금 특별법과 무주 태권도 공원 특별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할때 전남 서남권 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특별법도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1 특별법과 광주 특별법의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의원들은 F1 특별법의 정부 예산 지원을 최소화, 법적인 골격만 남긴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김효석 대통령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늦어도 오는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또한, 오는 12월24일 임시국회를 소집, 이라크 파병 연장안과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처리를 위해 내달 26일부터 28일까지의 최소한의 일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 90일 전까지 의정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가 17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의정보고 기간이어서 임시국회 일정이 1월 초순까지 잡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